
전체 주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메시지 18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됨

성경: 창1:26, 28, 32:28, 35:10, 갈6:15-16

I.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롬9:6하, 2:28-29, 빌3:3)로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이방인 믿는이들과 유대인 믿는이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참 아들들이요, 믿음의 가정이요, 새 창조 안에 있는 이들이다—갈6:15-16, 10, 3:7, 29.

- A.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이다—6:16, 마16:18.
- B.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두가 되었다—갈3:26, 6:16.
 - 1.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들이다—10절.
 - 2. 우리는 왕이 되도록 운명지어진, 왕이 될 사람들이다.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다—계5:10.
 - 3.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왕들이 되는 것이다—21:7, 22:5하, 12:5상.
 - a.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새 창조로서 우리는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신실하고, 온유해야 한다—갈3:26, 5:22-23.
 - b.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왕자들과 승리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따라 행해야 한다—25절, 6:16.
- C.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말은 우리가 왕다운 행함을 가진 왕다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롬5:17, 21.
- D.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땅에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한다—창1:26, 28, 눅10:19, 계12:5, 7-11.

II.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창32:28, 35:10, 갈6:16.

- A.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골2:11.
 - 1.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자아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창17:10-14, 신10:16, 렘4:4상, 롬2:28-29.
 - 2.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거절하고 육체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빌3:3.

- B.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 안에 행해야’ 한다—롬4:12.
1.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히11:8.
 2.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창15:6, 롬4:2-3.
 3.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살고, 없는 것을 있도록 부르시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었다—히11:9, 창12:7-8, 롬4:17.
- C. 우리는 ‘이 규칙—새 창조가 되는 규칙,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활로 하는 규칙—에 의해 행해야’ 한다—갈6:15-16.
1. 새 창조의 의미는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조성하시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다—엡4:4-6, 24, 골 3:10-11.
 2. 새 창조를 사는 것은 통제하는 원칙인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의해 행하는 것이다—갈6:15-16.
- D.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롬5:17하.
1. 우리는 신성한 생명, 영적인 생명, 왕의 생명, 왕가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 생명이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하여 우리가 왕들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요1:12-13, 3:3, 5.
 2.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사탄, 세상, 죄, 육체, 자아, 모든 주변 환경을 정복하고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것이고, 모든 종류의 불순종을 복종시키는 것이다—롬8:2, 37, 35, 5:17-18.
 3.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제한과 한정을 익혀야 한다—마8:9, 고후2:14-15, 잠21:1.
- E.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11:23.
1. 이것은 구결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집행하는 방식—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분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마21:21-22.
 2.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되신다—막11:22.
 3.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다—24절.
- F.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통치권을 갖고...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1:26.
1. 하나님께서는 땅을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하여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 이 그분의 피조물인 ‘사탄’ 을 처리하기 원하신다—시149:7-9.
 2.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그분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고, 사탄에게 해를 입히는—을 할 사람이 필요하시다—창1:26.
 3. 자아가 보류되어 있다면 사탄은 결코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탄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자아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계12:11.
 4.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완전히 절대적이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기 바란다.
- G.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양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드시고 인도하시어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께 속하고, 영원히 그분께 헌신하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며, 영원히 그분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바란다.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아멘.” (워치만니 전집 제2집 제14권, 영광스런 교회, 174-175쪽)